

보건의료 대학생들의 사상체질 분류에 따른 학업소진 경향의 차이

김윤영 · 장은수^{1*}

국립안동대학교 간호학과, 1 : 대전대학교 한의예과

Differences in the Tendency of Academic Burn-Out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mong the Healthcare College Students

Yunyoung Kim, Eunsu Jang^{1*}

Department of Nursi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1 :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Academic burn-out is a state of emotional, and physical exhaustion caused by prolonged stress over the course of the semester and academic year. It is composed of exhaustion, inefficacy, and cynic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at the academic burn-out would b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early and the end stage of semester, and the sub pattern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mong the healthcare college students.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in early March 2018 and the second one was done in the end of June 2018. Total 386 questionnaires concerning KS-15 of Sasang Constitution, MBI-SS of academic burn-out and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drinking, smoking and so on were collected and 9 of them were excluded, because of insufficient answers. The academic burn-out sco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56 in early stage of semester to 63 in the end stage of semester ($p < .001$). In sub-pattern analysis, the exhaustion sco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21.3 to 26.7 ($p < .001$), and cynicism score increased from 15.4 to 17 ($p < .001$). The cynicism score of drinking alcohol group (16.21 ± 5.572) was higher than the non-drinking alcohol group (14.62 ± 5.859), and the exhaustion score of smoking group (23.75 ± 6.942)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n-smoking group (21.05 ± 6.697) in early stage of semester. The exhaustion score of female (27.47 ± 5.762)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26.02 ± 6.536) ($p = .024$), and the inefficacy score of Taeumin (20.13 ± 5.244)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Soyangin (18.15 ± 5.588) in the end stage of semester. The healthcare college student experiences academic burn-out, and there i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nd SC in sub-pattern. Further study is needed to manage the academic burn-out according gender and Sasang constitution.

keywords : Academic Burn-Out, Sasang Constitution, College Students

서 론

소진의 개념은 그동안 의료, 교육,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 영역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영역이 확장되면서¹⁾. 최근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다²⁾. 학생들이 느끼는 소진은 대부분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피로감, 좌절감, 스트레스, 무력감, 냉소적 태도 등을 나타내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갈상태를 의미 한다³⁾. 다양한 정신장애가 문제가 되는 오늘날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우울, 불안 및 공격성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적응 현상으로 나타나고 되고⁴⁾, 결과적으로 소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⁵⁾.

학업소진은 학생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특히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 중 절반 이상에게 영향을 줄 만큼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이 학업소진으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⁶⁻⁸⁾.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타 전공에 비해 비교적 취업률이 높고 졸업 후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국가고시를 비롯한 다양한 시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⁹⁾, 이론수업 뿐만 아니라 교내 실습수업 및 임상 실습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로 유급이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¹⁰⁾. 이러한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학업

* Corresponding author

Eunsu Jang,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62, Daehak-ro, Dong-gu, Daejeon, 300-716, Korea

E-mail : esjang@du.kr Tel : +82-42-280-2612

Received : 2019/01/28 Revised : 2019/03/16 Accepted : 2019/04/15

© The Society of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The Physiological Society of Korean Medicine

pISSN 1738-7698 eISSN 2288-2529 <http://dx.doi.org/10.15188/kjopp.2019.04.33.2.151>

Available online at <https://kmpath.jams.or.kr>

소진 문제는 졸업 후 보건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겨진다¹¹⁾.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국외에서는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학업소진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고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12,13)}.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 등¹⁴⁾은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의 차이는 없었지만 경로계수의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남학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고 등¹⁵⁾은 대학생의 학습 동기 유형에 따라 학업소진 하위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성별이나 학업유형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사상체질별로 학업소진의 유형이 다를 수 있고, 또한 체질별 학업소진 관리법과 해결법이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¹⁾.

사상체질의학은 한국전통의학으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체질별로 강하고 약한 장부를 타고 난다고 알려져 있다¹⁶⁾. 이러한 관점에서 이 등¹⁷⁾은 사상체질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행위가 다를 수 있다고 하였고, 김 등¹⁸⁾은 개개인의 생활습관이 체질별 삶의 질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여 일상적인 생활습관이 체질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실제 학업소진이 체질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학업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사상체질별 소진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체질별 맞춤형 증진 및 학업소진 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03월부터 2018년 07월까지 D시와 A시에 위치한 2개 종합대학교에서 한의대 및 간호대에 재학 중인 보건의료계열 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시 대상자 보호를 위해 A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 승인 후(승인 번호: 1040191-201712-HR-008-01)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 획득 후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는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대상자가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함과 연구 자료의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2. 연구도구

1) 사상체질

체질진단 도구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단축형 사상체질진단 설문지(Korea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tic Questionnaire) KS-15를 사용하였다¹⁹⁾. KS-15는 성격 6문항, 소

화 2문항, 땀 2문항, 대변 1문항, 소변 1문항, 한열음수 2문항, 총 14문항과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로 구성된 설문지로, 동의수세보원의 체질진단 변증론에서 언급한 외형, 심성, 병증 요소를 바탕으로 초등학생부터 90세 미만 노년층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설문이다¹⁹⁾.

사상체질 진단 설문지인 KS-15의 경우 체질 가능성이 백분율(%)로 표시되도록 개발되었으며,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체질결과를 해당 체질로 진단하게 된다. KS-15 설문지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63이었으며, 체질진단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13% (Kappa=0.794)이었다²⁰⁾.

2) 학업소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업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aufeli 등²¹⁾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를 신 등²²⁾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진 측정 척도(MBI-SS)는 총 15문항으로 정서적 고갈, 무능력감, 냉소성의 3개의 하위 척도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하위 척도는 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구성되며, 최대 75점에서 최소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신 등²²⁾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7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하였으며, 대상자의 학기 전후 학업소진 정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후 학업소진 차이는 특성 변수가 2개인 경우는 t-test를, 3개 이상인 경우는 ANOVA 검정을 시행하였고, 군간 차이가 있는 경우는 사후분석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5 로 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로부터 총 386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일부 문항의 응답이 누락된 9부를 제외한 37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190명(50.4%), 여학생이 187명(49.6%)이었으며, 체질별로 분류하였을 때 태음인 164명(43.5%), 소음인 102명(27.1%), 소양인 111명(29.4%)이었다.

대상자의 체질량 지수(BMI)의 경우 23미만이 275명(72.9%)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형태의 경우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79명(21.0%),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이 298명(79.0%)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145명(38.5%), 종교가 없는 경우는 232명(61.5%)이었고 경제상태의 경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284명(75.3%),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는 93명(24.7%)이었으며, 현재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는 177명(46.9%), 술을 마시는 경우는

200명(53.1%)이었다. 또한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48명(12.7%), 담배를 피운 경험이 없거나 금연한지 한 달 이상 된 경우가 329명(87.3%)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3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90	(50.4)
	Female	187	(49.6)
Sasang constitution	Teaumin (TE)	164	(43.5)
	Soeumin (SE)	102	(27.1)
	Soyangin (SY)	111	(29.4)
BMI	Less 23	275	(72.9)
	23-25	64	(17.0)
	Over 25	38	(10.1)
Residence	Own House	79	(21.0)
	Rent or Dormitory	298	(79.0)
Religion	Have	145	(38.5)
	Do not have	232	(61.5)
Economic condition	Good	284	(75.3)
	Bad	93	(24.7)
Drinking	No	177	(46.9)
	Yes	200	(53.1)
Smoking	No	329	(87.3)
	Yes	48	(12.7)

2. 대상자의 소진정도의 변화

대상자의 소진정도를 학기 초와 학기 말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소진정도는 56.0점에서 63.0점으로 나타났다. 학기 초 각 하위항목에서 최대 최소값은 정서적 고갈과 무능력감의 경우 각각 최대 35점, 최소 5점이었고 냉소성은 최대 28점, 최소 4점이었다. 학기말 각 하위항목에서 최대 최소값은 정서적 고갈과 무능력감의 경우 각각 35점 5점이었고 냉소성은 최대 48점, 최소 4점이었다 (Table 2).

3. 대상자의 학기 전·후 소진정도의 차이 분석

대상자의 소진정도를 학기 초와 학기 말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소진정도는 56.0점에서 63.0점으로 증가하였다. 하위항목으로는 정서적 고갈의 경우 평균 21.3점에서 26.7점으로 증가하였고 냉소성은 15.4점에서 17.0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무능력감의 경우 19.1점에서 19.2점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항목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한 결과 냉소성의 경우 학기 초 최대 28점이었던 것에 비하여 학기 말 48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The Change of Academic Burn-Out Score of the Subjects (N=377)

			Max	Min	Item Mean(SD)	Total Mean(SD)
Pre	Academic Burn-Out	Exhaustion	35.0	5.0	21.3±6.77	56.0±12.94
		Inefficacy	35.0	5.0	19.1±4.92	
		Cynicism	28.0	4.0	15.4±5.75	
Post	Academic Burn-Out	Exhaustion	35.0	5.0	26.7±6.19	63.0±12.78
		Inefficacy	35.0	5.0	19.2±5.19	
		Cynicism	48.0	4.0	17.0±5.76	

Table 3. The Academic Burn-Out Difference of the Subjects between Pre-Post Semester(N=377)

		Pre (Mean±SD)	Post (Mean±SD)	r(p)	Paired t-test (Mean±SD)	t(p)
Academic Burn-Out	Exhaustion	21.39±6.780	26.74±6.199	.443* (<.001)	-5.345±6.867	-15.113* (<.001)
	Inefficacy	19.15±4.929	19.24±5.193	.554* (<.001)	-0.090±4.788	-0.366 (.715)
	Cynicism	15.46±5.756	17.05±5.766	.607* (<.001)	-1.589±5.111	-6.036* (<.001)
	Total	56.01±12.670	63.03±12.783	.634* (<.001)	-7.024±11.010	-12.387* (<.001)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기 초 소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기 초 소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음주를 하는 학생들이 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냉소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전체점수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정서적 고갈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전체점수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Table 4. The Academic Burn-Out Difference of the Subjects in Early St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377)

Variables		Exhaustion		Inefficacy		Cynicism		Total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Gender	Male	21.67±6.965	0.811	19.59±5.163	1.745	15.98±5.835	1.755	57.24±12.886	1.873
	Female	21.11±6.593	(.418)	18.71±4.652	(.082)	14.94±5.640	(.080)	54.75±12.909	(.062)
Sasang constitution	Teaumin (TE)	21.74±7.022		19.59±5.121		15.95±5.760		57.27±13.105	
	Soeumin (SE)	21.65±6.319	0.953 (.387)	19.25±4.508	1.873 (.155)	15.02±5.441	1.054 (.350)	55.91±12.261	1.850 (.159)
	Soyangin (SY)	20.65±6.825		18.42±4.972		15.15±6.023		54.23±13.201	
BMI	Less 23	21.39±6.691		18.87±4.591		15.33±5.761		55.59±12.744	
	23-25	21.31±7.451	0.015 (.985)	20.16±5.367	1.912 (.149)	15.72±5.733	0.300 (.741)	57.19±13.593	0.541 (.582)
	Over 25	21.55±6.400		19.53±6.272		16.00±5.863		57.08±13.222	
Residence	Own House	22.06±6.233	0.989 (.323)	18.75±5.160	-0.820 (.413)	16.30±6.009	1.460 (.145)	57.11±13.073	0.854 (.394)
	Rent or Dormitory	21.21±6.916		19.26±4.870		15.24±5.677		55.71±12.911	
Religion	Have	20.88±7.245	-1.155 (.249)	18.91±4.775	-0.750 (.454)	15.36±5.789	-0.281 (.779)	55.15±13.435	-1.016 (.310)
	Do not have	21.71±6.467		19.30±5.028		15.53±5.747		56.54±12.621	
Economic condition	Good	21.27±6.584	-0.590 (.556)	18.99±4.988	-1.138 (.256)	15.39±5.675	-0.432 (.666)	55.65±12.554	-0.935 (.351)
	Bad	21.75±7.370		19.66±4.738		15.69±6.022		57.10±14.071	
Drinking	No	20.72±6.806	-1.809 (.071)	18.82±5.062	-1.210 (.227)	14.62±5.859	-2.696** (.007)	54.17±13.335	-2.615 (.009)
	Yes	21.99±6.718		19.44±4.803		16.21±5.572		57.64±12.388	
Smoking	No	21.05±6.697	-2.599* (.010)	19.03±4.962	-1.215 (.225)	15.37±5.817	-0.851 (.395)	55.45±13.028	-2.204 (.028)
	Yes	23.75±6.942		19.96±4.667		16.13±5.326		59.83±11.746	

Table 5. The Academic Burn-Out Difference of the Subjects in End St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377)

Variables		Exhaustion		Inefficacy		Cynicism		Total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Gender	Male	26.02±6.536	-2.274	19.56±5.476	1.213	17.30±6.261	0.839	62.88±13.897	-0.226
	Female	27.47±5.762	(.024)	18.91±4.883	(.226)	16.80±5.221	(.402)	63.18±11.578	(.821)
Sasang constitution	Teaumin (TE)	26.73±5.576	0.008	20.13±5.244	5.044	17.66±6.055	1.691	64.52±12.835	2.153
	Soeumin (SE)	26.69±6.793	(.992)	19.00±4.403	(.007)	16.72±5.281	(.186)	62.40±11.832	(.118)
	Soyangin (SY)	26.79±6.548		18.15±5.588	a>c	16.46±5.719		61.41±13.399	
BMI	Less 23	26.79±6.431	0.046	19.01±4.988	1.042	17.02±5.500	1.563	62.82±12.603	0.500
	23-25	26.64±5.266	(.955)	19.75±5.572	(.354)	16.38±5.658	(.211)	62.77±12.215	(.607)
	Over 25	26.50±6.071		20.05±5.955		18.45±7.522		65.00±15.030	
Residence	Own House	27.01±5.993	0.443	19.10±5.394	-0.269	17.81±7.106	1.117	63.92±13.683	0.697
	Rent or Dormitory	26.66±6.259	(.658)	19.28±5.148	(.788)	16.85±5.352	(.267)	62.80±12.547	(.486)
Religion	Have	24.28±6.406	1.335	19.06±5.332	-0.529	17.17±6.283	0.317	63.51±13.361	0.574
	Do not have	26.40±6.054	(.183)	19.35±5.113	(.597)	16.98±5.432	(.751)	62.73±12.428	(.556)
Economic condition	Good	26.76±6.382	0.114	18.97±5.294	-1.766	17.12±5.949	0.413	62.85±12.848	-0.477
	Bad	26.68±5.630	(.909)	20.06±4.807	(.078)	16.84±5.193	(.680)	53.58±12.637	(.634)
Drinking	No	26.46±6.576	-0.824	18.72±5.075	-1.828	17.05±5.058	-0.025	62.23±13.099	-1.152
	Yes	26.99±5.849	(.410)	19.70±5.266	(.068)	17.06±5.511	(.980)	63.75±12.486	(.250)
Smoking	No	26.60±6.198	-1.162	19.22±5.200	-0.220	17.02±5.698	-0.307	62.83±12.734	-0.791
	Yes	27.71±6.175	(.246)	19.40±5.197	(.826)	17.29±6.277	(.759)	64.40±13.169	(.429)

다. 다른 항목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기 말 소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기 말 소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점수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하위항목인 정서적 고갈 항목 점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무능력감 항목 점수에서 체질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able 5).

고찰

보건의료계열 학생들 중 의학계열 학생의 경우 수업연한이 타 전공 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고 학업량이 많으며, 간호학과 의 경우에도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타 전공 학생보다 졸업시 필요한 수업시수가 많아 학업소진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국가고시라고 하는 시험 준비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학업소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²³⁻²⁵.

이러한 학업소진은 체질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체질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학업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사상체질별로 소진유형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체질별 맞춤형 건강 증진 및 학업소진 관리방안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시도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학업소진 정도를 학기 초와 학기 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상자들의 전체적인 소진정도는 56.01점에서 63.03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학업소진의 하위항목인 '정서적 고갈'의 경우 평균 21.3점에서 26.7점으로 증가하였고 '냉소성'은 15.4점에서 17.0점으로 증가하

였으나 '무능력감'의 경우 19.1점에서 19.2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정서적 고갈과 냉소성이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 등²⁶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고갈과 냉소성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석하자면 학생들이 학업 등에 대해 힘들어하지만,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기 초와 학기 말로 나누어 소진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학업소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음주를 하는 학생들이 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냉소성' 항목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전체점수에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음주가 학업소진의 '냉소성'과 연관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음주가 '냉소성'을 높이는지, 아니면 '냉소성'이 높은 학생들이 술을 먹는지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 또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정서적 고갈'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전체점수에서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흡연이 '정서적 고갈'과 연관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흡연이 '정서적 고갈'을 야기하는지, 아니면 '정서적 고갈'이 높은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안 등²⁷은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흡연이 학생들의 학업소진과 무관하다고 하였으나 고 등²⁸은 음주와 흡연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이라고 하는 등 아직까지 연구로서 결론이 명확하지 않다. 향후 음주와 흡연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생들의 사상체질별 학업소진점수는 학기 초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어느 체질이 다른 체질에 비해 좋다, 나쁘다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다만 체질마다 약한 장부가 있어 해당체질의 보명지주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²⁹. 본 연구에서 학기 초에 학업소진 점수가 차이나지 않았던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가 20-30대 대학생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방학을 막 끝내고 온 상태로 아직 학업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지 않아 체질별 차이를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기 말에 학업소진 정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점수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하위 항목으로 보면 여성의 '정서적 고갈' 점수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계열 여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더 소진되었다고 느낀다는 의미로 고 등³⁰⁾이 한의대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소진점수가 높다고 한 것과 유사하고 또한 고 등¹⁵⁾이 성별에 따라 소진의 경로계수가 다르다고 연구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기말 학업소진에 대해 '무능력감'에서 사상체질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무능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계열 태음인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데 소양인에 비해 '무능력감'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의수세보원에 "성질장어성취, 이재간능어거처(性質長於成就, 而材幹能於居處)" 라 하여 태음인은 성취에 능하다고 한 것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다만, 태음인의 특성이 잘 움직이려 하지 않고 머무름에 능하여³¹⁾ 단기간의 많은 학업으로 성취를 이루고 이를 평가하는데 다소 불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성향이 '무능력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양인의 경우는 항심(恒心)이 구심(懼心)으로 미래에 대해 항상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향이 빠르고 대비하는 특성이 강하다. 이런 체질적 심성이 상대적으로 소양인이 '무능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학업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사상체질별 소진유형에 차이를 알아보려 하였으나 2개 대학의 일부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편중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특징으로 보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천³²⁾의 연구에 따르면 학년과 학과에 따라 학업소진 하위항목의 점수가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과 및 학년별 차이점을 제시하지 않아, 학과 및 학년별로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업소진 예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남녀 체질별로 한 학기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다르게 경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 향후 맞춤 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다른 보건의료 계열 학생을 다양하게 포함한 연구 및 본 연구결과와 정확한 검증을 위해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사상체질에 따른 소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재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학기 초와 학기 말의 학업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사상체질별 소진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소진정도를 학기 초와 학기 말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소진정도는 56.0점에서 63.0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하위항목으로는 '정서적 고갈'의 경우 평균 21.3점에서 26.7점으로 증가하였고 '냉소성'은 15.4점에서 17.0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무능력감'의 경우 19.1점에서 19.2점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기 초 소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음주를 하는 학생들이 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냉소성' 항목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전체점수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정서적 고갈' 항목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전체점수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기 말 소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점수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하위항목인 '정서적 고갈' 항목 점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무능력감' 항목 점수에서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은 학기 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소진을 겪고 있으며, 그 경향성은 성별, 체질별 차이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성별 체질별 학업소진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Acknowledg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No. NRF-2017R1C1B5017663).

References

1. Schaufeli WB, Martinez IM, Pinto AM, Salanova M, Bakker AB.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02;33(5):464-81.
2. Kyeon YG, Cho SM, Hwang HG, Lee KU.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on academic achievement in 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10;22(3):205-14.
3. Gao HY. The differences i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between motivation typ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2;13(1):125-47.
4. Choi MK, Jo YR. The effects of life stress, perceived anxiety control, and coping style on anxiety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5;24(2):281-98.
5. Janett H, Mesibov. Commitment to philosophy, teacher efficacy, and burnout among teachers of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003;33(6):583-93.

6. Lee SH, Lee DY. Validation of the MBI-SS Scales -based on Medical School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3;14(2):165-87.
7. Dyrbye LN, Thomas MR, Eacker A, Harper W, Massie FS Jr, Power DV, Huschka M, Novotny PJ, Sloan JA, Shanafelt TD. Race, ethnicity, and medical student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2007;167(19):2103-9.
8. Saipanish, Stress among medical students in a Thai medical school. *Medical Teacher*. 2003;25(5):502-6.
9. Kim CS, Shin SC, Gang MH. Effect of the test stress on the immunological functions of the medical students. *Chungnam Medical Journal*. 1995;22:423-36.
10. Guthrie EA, Black D, Bagalkote H, Shaw C, Campbell M, Creed F. Psychological stress and burnout in medical students: a five-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1998;91:237-43.
11. Yoong C, Hung E, Pin H, Ithnin H, Sangit N, Kwee O, Hee W, Kwan Y, Das D, Das A. Stress among medical students in a medical college of South India. *Education for Health*. 1999;12:63-9
12. Dyrbye LN, Thomas MR, Huntington JL, Lawson KL, Novotny PJ, Sloan JA, Shanafelt TD. Personal life events and medical student burnout: a multicenter study. *Academic Medicine*. 2006;81(4):374-84.
13. Dyrbye LN, Thomas MR, Massie FS, Power DV, Eacker A, Harper W, Duming S, Moutier C, Szydlo DW, Novotny PJ, Sloan JA, Shanafelt TD. Burnout and suicidal ideation among US medical student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08;149:334-41.
14. Kang HJ, Kang SH, Lim EM. Explor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ademic stress, hope, intrinsic motivation and academic burn-out of high school student and the gender difference.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4;15(4):1-27.
15. Go HY. The differences i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between motivation typ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2;13(1):125-47.
16. Kim JY, Pham Ddu.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s a holistic tailored medicine.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09;6(1):11-9.
17. Lee TG, Hwang MW, Lim KH, Jeong YJ, Kim SB, Lee SK, Ko BH. The Discussion for by Sasang constitutional health definition.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3;15(3):88-99.
18. Kim TE, Lee KM, Jeong MS, Evaluation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lifestyle of blue-collar workers.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09;13(1):117-30.
19. Baek YH, Jang ES, Park KH, Yoo JH, Jin HJ, Lee SW.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KS-15(Korea Sasang constitutional eiagnostic questionnaire) based on body shape. *Temperament and Symptoms.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5;27(2):211-21.
20. Kim YY, Jang ES. Test-retest reliability of brief KS-15 - Korean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tic questionnaire.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016;30(3):177-83.
21. Schaufeli WB, Martinez IM, Pinto AM, Salanova M, Bakker AB.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02;33:464-81.
22. Shin H, Puig A, Lee J, Lee JH, Lee SM. Cultural validation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for Korean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2011;12(4):633-9.
23. Guthrie E, Black D, Bagalkote H, Shaw C, Campbell M, Creed F. Psychological stress and burnout in medical students: a five-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1998;91(5):237-43.
24. Brazeau CM, Schroeder R, Rovi S, Boyd L. Relationships between medical student burnout, empathy, and professionalism climate. *Academic Medicine*. 2010;85(10):33-6.
25. Chang E, Eddins FF, Coverdale J. Survey of the prevalence of burnout, stress, depression, and the use of supports by medical students at one school. *Academic Psychiatry*. 2012;36(3):177-82.
26. Lee SH, Lee DY. Validation of the MBI-SS Scales -based on medical school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3;14(2):165-87.
27. An MJ, Kang AY, Kim YA, Kim MJ, Kim YL, Kim HW, Na YS, Hwang YY. Comparison of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burnout, stress, and social support by grad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7;30(2):113-23.
28. Ko YG, Kim JY.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mental health and general safety behaviors in adolescents. *Youth Studies Research*. 2016;23(12):303-25.
29. Kim JU, Ku BC, Kim YM, Do JH, Jang JS, Jang ES, Jeon YJ, Kim KH, Kim JY. The concept of Sasang health index and constitution-based health assessment: An integrative model with computerized four diagnosis

- methods.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3.
30. Go HY, Sung HK, Kim MJ, Chae H, Lee SJ. Cross-sectional study about stress and health recognition in Korean medicine student by gender.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18;39(2):80-91.
 31. Lee JM. Longevity and life preservation in oriental medicine(東醫壽世保元). Seoul: Kyung Hee Univ. Press. 1996.
 32. Chun KH.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burnout of medical and graduate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4;16(2):77-87.